

[축사]

축 사*



구 요 비

【서울대학교 중서울·선교 담당주교】

† 찬미예수님!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인간 생명」의 반포 50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지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의 제27회 학술심포지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과 생명, 가정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생명의 문화가 꽃피우는 사회로 변화되길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첫 번째 생명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회칙 「인간 생명」이 올해로 반포 된지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에는 회칙을 반포하신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성인품에 오르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등 뜻깊은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남자와 여자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개체적 인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인 부부로서의 소명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치와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하여 결혼한 남녀는 하느님의 창조적 사랑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과 일치함으로써 하느님과의 일치하여 살게 됩니다¹⁾라고 가르칩니다.

* 이 글은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에서 주관한 “「인간 생명」 반포 50주년 기념－현 사회의 흐름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 생명」의 예언성과 그 가치” 학술심포지엄 (2018.11.10.)에서 발표한 축사임.

1) 「인간적 사랑에 관한 교육지침」 25~26항.

부부가 정결하고 친밀하게 결합하고 인간 생명을 전달하는 행위인 부부애는 현세적인 것만이 아닌 초자연적인 것 곧 하느님과 영원한 것에 관계되는 것이며²⁾ 이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³⁾ 것입니다. 이 품위 있는 부부 행위는 하느님께서 원하셨고 인간이 임의로 깨뜨릴 수 없는 두 가지의 불가분의 관계에 기초합니다. 그 두 가지 의미란, 일치의 의미와 출산의 의미입니다. 부부 행위는 신랑과 신부를 지극히 깊은 유대로 결합시키며, 남자와 여자의 존재 안에 새겨진 법칙에 따라,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합니다. 일치와 출산이라는 본질적 측면을 모두 보호할 때, ‘부부 행위’는 참된 상호적 사랑의 의미와, ‘부모 됨’이라는 지고한 소명을 향한 질서를 온전히 보존합니다.⁴⁾

또한 회칙에서는 “하느님께서서는 출산이 그 자체로 간격을 두고 일어나도록 가임력의 자연적 법칙과 주기를 지혜롭게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구한 가르침으로 해석된 자연법의 규범을 사람들이 지킬 것을 촉구하며, 모든 부부 행위가 생명 전달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⁵⁾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칙 「인간 생명」은 ‘혼인이 지니는 거룩함과 부부애를 통한 부성과 모성 가르치며 ‘자연의 법칙을 따라 ‘인간 생명 전달하는 중대한 임무가 부부에 있으며 이는 하느님 창조에 동참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임을 거부하고 자연주기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는 회칙 「인간 생명」의 가르침에 따라 한국교회 생명운동의 시발점 역할을 하였던 ‘행복한 가정운동’을 활성화하였고 혼인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을 위한 혼인교리’와 청소년들을 위

2) 「인간 생명」 7~8항.

3) 「사목 헌장」 49항.

4) 「인간 생명」 12항.

5) 「인간 생명」 11항.

한 성·생명교육인 ‘틴스타’ 그리고 난임 부부들을 위한 ‘나프로임 신법 프로그램’ 등 사목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부 사랑과 혼인과 출산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가 왜곡되고 부모의 부성과 모성이 가치를 잃어가는 세상에 회칙 「인간 생명」을 다시 조명하는 심포지엄이 열리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이동호 신부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귀한 강연을 해 주실 양주열 신부님과 박은호 신부님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장이신 이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0일
구요비 주교